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2호

백리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장 이종우
- 편집인 : 부회장 이영근
- 발행일 : 2013년 4월 21일

주소 :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 | http://sachonlee.net |

구암 선조 탄신 500주년기념 구암집 봉정 감사문



대중회장 이종우

오늘은 아(我) 선조 구암 선생의 탄신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잔치날입니다. 먼저 후손을 대표해서 구암 할아버지 영전에 삼가 봉축 재배를 올리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시(市)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계시는 박동선 문화위원장님 또 본 행사를

주최하시면서 오랜 기간 염려와 큰 수고를 해 오신 구계서원 대관대 유계회 장창현 회장님과 유계회 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선생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선생문집 국역본을 완성하여 오늘 봉정하게 됨을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이 가신 후 20년만인 서기1592년에 일어난 저 임진왜란과 뒤이은 정유재란 양란(兩亂)을 겪으면서 이곳 사천 지방은 그야말로 축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한반도 중앙을 공략하려는 전진 교두보로서 적들은 일찍이 인근 선진리에 왜성(倭城)을 축조하여 지휘부로 삼고 진주성을 함락하기 위한 전진이 전후 7년여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던 우리나라 최대 격전지로서 이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선생의 분묘마저 도굴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으니 서책과 유물, 유품 등의 훼손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난리가 끝나고 사십여년이 흐른 인조19년 1641신사(辛巳)년에서야 선생의 문도들이 가장(家藏)하고 있던 초고(草稿)들을 이리저리 수습해서 당시 구산서원에서 목판을 완성하기 까지 삼년여가 걸려 원집 초간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간 이후 100여년이 지난 영조25년 1749년에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모아 속집이 출간되어 오다가 다시 근 200년이 지난 1902년에 세번째로 별집이 보충 간행됨으로써 선생의 문집은 그나마 3책 6권이 완성되어 오늘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선생이 남긴 시서(詩書)자료의 약 70~80%는 난리 중에 망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각 문집 서발문(序跋文)에서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단적인 예로서 퇴계선생과의 왕복서한에서 퇴계선생이 구암선생께 답신한 것만도 140여 통이 그대로 있으나 구암선생이 퇴계선생께 보낸 서한은 겨우 4통만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심여년전 한글세대를 위하여 사천문화원이 노력하여 1차 국역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준비와 재원의 한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못내 아쉬워하다가 급변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이렇게 훌륭한 번역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은 유년시절에 관포 어득강 선생을 따르며 본받고, 청년시절에는 당대 성리학의 대가 구암 송인수 선생에게 나아가 수업하시고, 조정에 들거나 지방관에 재임하신 중장년 시기에는 퇴계선생을 비롯한 남명선생 신재 주세붕 선생 등 홍유석학(鴻儒碩學)들과 사우시간(師友之間) 혹은 선후배로서 두터운 교분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당신의 학문을 더 깊고 넓게 다듬어서 스스로 성명(性命)의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도산으로부터 대도(大道)를 들어 마치셨습니다.

조선조 초중기에 연이은 사화로 인하여 정치사정은 매우 불안했지만 훌륭한 대선비들이 줄이어 탄생한 시대이므로 선생의 학문 연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단히 복 많은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선생은 문과 진출 이듬해인 26세의 약관에 명나라 성절사 서장관의 자격으로 4월에 임경 12월 귀국하실 때까지 약 8개월간 머무르시다가 돌아오실 때 당,송 이래의 유학 고서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오셔서 뒷날 목민관 재임시에 당시 구하기 어려운 성리학 관련 서적들을 다수 저술하고 편간(編刊)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성리학 연구보급에 크게 이바지 하셨습니다.

한편 만년에 손수 지으신 구암정사는 물론 경주의 서약정사, 순천의 옥정사 등을 연달아 창건하시어 선현을 추존하고 어지러운 질서와 민심을 수습하고 선정을 베풀며 후학 제성을 모아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일생동안 성리학을 연구하여 널리 보급하고 후학들에게 교육함을 당신의 사명으로 자임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가 복원되면 기존 구계서원과 더불어 이곳 사천은 저 옛날 남도(南都)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회복될 것이며 우리 지역문화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전통윤리와 인성교육을 훌륭하게 펼 수 있는 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고장 사천시만이 가지는 자랑이며 문화근지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그토록 문교(文教)를 장려하여 도덕입국을 이루고자 하였던 숭고한 교육정신을 오늘에 다시 구현하는 아름다운 문화 사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퇴계선생이 도산서당을 짓기 전 몸소 거처하시던 집인 한서암(寒栖庵)과 제자들이 기숙하던 집인 계재(溪齋), 학문을 연구하던 계상서당(溪上書堂) 등 세동의 옛집을 작년인 2011년 4월에 준공하여 계상학림(溪上學林)으로 복원하고 인근에 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추가함으로써 선비정신문화교육의 장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흡하고도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선생의 참모습을 찾아서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구암선생 관련 학술세미나와 그리고 구암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주관하고 지원해 주신 시 문화원과 시 당국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사가 열릴 때 마다 주도적으로 주선하고 정성을 다해 오신 경남 문화재 전문위원 이은식 박사님과 경북대학 정우락 교수님의 노고를 항상 잊지 못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세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역본은 물론 난해한 원문의 참뜻까지 잘 터득할 수 있도록 의역까지 하시느라 정성을 다해 큰 노고를 해주신 성기옥 박사님께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선생의 넓고 깊은 학문과 조선유학사에서 수행하신 지대한 역할과 공헌을 깊이 숭모하면서 오늘의 행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퇴계선생 후손 상계문중 대표자 여러분과 동동서원에서 오신 하객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사년에도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은둔하여 <역경>을 읽고, 도를 강구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했다. (송병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 후학들이 구암의 가르침을 따라 서원을 짓고 학문을 이어 내리면서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필자는 묻혀 있던 구암을 학술현장으로 모셔내 금년으로 열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까지 세 번에 걸쳐 구암제를 거행하였으며 그 부속행사로 과거(科擧)행사를 재현했다. 대관대유계회 회원들이 구암 탄신 500주년을 기념행사로 진행하지는 의논이 있어 그 동안 구암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묶어 <구암집(龜巖集)>을 엮어 펴내게 돼 매우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오늘 못 다한 일들은 다음 기회에 더 큰 계획을 세워 좀 더 구체적인 구암의 흔적을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13년 2월 구암집(龜巖集) 발간사에서

(편집자 주 : 근거(根機)=기(機),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질이나 능력)



2013년 임원회의

- 일시 : 2013. 3. 9.
- 장소 : 조원사 일원제



2012년도 대중회 중무(宗務)보고

1) 춘계제향 봉행

- ▷ 일시 : 2012년 4월 15일
- ▷ 유사 : 침정공파 종선문중



2) 제3회 구암제 시화 전시

- ▷ 기간 : 2012. 4. 6~9(4일간)
- ▷ 장소 : 선진공림
- ▷ 성과 : 구암 선생 업적과 학문 홍보에 기여



3) 구암 선생 탄신500주년 기념행사

- ▷ 주최 :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 ▷ 주관 : 사천문화원
- ▷ 일시 : 2013년 2월 3일(음 12월 23일)
- ▷ 소요예산 : 5,700백만원(사천시 2,000만원, 구계서원 2,200만원, 구암제 집행위원회 1,000원, 사천이씨대중회 500만원)
- 집행내역 : 문집간행 2,500만원, 기념행사 3,200만원



4) 종보간행 1,500부 소요예산 1,300,000원

5) 이사회 개최

- ▷ 일시 : 2012년 11월 24일
- ▷ 구암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 참여 결의
- ▷ 후원금 5,000,000원 결의
- ▷ 특기사항 : 부산화학회, 거창 합천화학회 각 버스 1대
- ▷ 성과
 - MBC 전국시대 방송으로 홍보 극대화 (다시보기 가능) http://home.invil.org/hoam/ 게시판 참고
 - 퇴계선생(진성)이씨 상계문중 8명, 도운회 5명, 박약회 3명, 동동서원 3명 참가
 - 세미나 참가 인원 성황을 이루어 발표자투게스터 감탄
 - 사천지방의 참여 인사들의 인식 제고



6) 관리인 사망으로 새 입주자 결정(청학골 종업원)

2013년도 대중회 사업계획

1) 시조공 춘계 제향

- ▷ 일시 : 2013년 4월 21(일) 11시
- ▷ 장소 : 조원사
- ▷ 유사 : 상군진사공파 화암문중
- 각 문중별 많은 종인의 참여 홍보 바랍니다.



2) 구암집 배부 400부

- ▷ 기금마련을 위해 유상 공금
- 권당 2만원 결의

3) 대관대 복원사업 추진

- ▷ 2014년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

4) 구암 선생 발간 서적 영인본 구비

- ▷ 성리현 관련 서적 19종 40책 140여권

구암 이문선생의 도서 간행목록	원 소장처	목판	연	순번	계명대 도서관
도서명	출판 연	역수 연	간행지	원 소장처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9권2책	1982	경주	국립중앙도서관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5권1책	1982	경주	국립중앙도서관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4권2책	1982	경주	동국대 경주도서관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25권4책	1982	경주	고려대 도서관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2권1책	1984	순천	한국기독교서회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2권1책	1985	순천	고려대 도서관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4권1책	1984	순천	경남대도서관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30권6책	1984	순천	목신서원	목판
유물추진위원회	목판 2책	1984	순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

5) 제4회 구암제 후원

- ▷ 일시 : 4월 11~14(5일) - 외릉문화제 병행
- ▷ 4월 13일 본제 개최(선진공림)
- ▷ 후원금 2,000,000원

6) 종보 제2호 간행

- ▷ 원고 제출 2013년 4월 5일한 종보간행 위원장에게 제출 원고를 메일 보낼 주소 (leeyg@chol.com 이영근)

사람은 근거(根機)로 태어난다



사천문화위원장 박동선

사람은 근거(根機)로 태어난다. 큰 지혜와 높은 근거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깨달음이 커서 자기가 서있는 자리와 시대 역사가 남긴다. 반면에 근거가 열은 사람은 큰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대지에 난 초목이 비바람에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구암은 근거가 큰 인물이었다. 이는 구암 자신이 일궈 놓은 학문과 그 학문을 바탕으로

후세인들에게 남긴 문장과 시구들에 확연히 나타난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남쪽 변방의 거친 지방에서 떨쳐 일어나, 일찍부터 선인들의 인격수양과 학문은 깨우치고 성현을 따르기로 수수로 마음속에 기약하여 충과 효에 더할 나위없는 천품을 지녔으며 사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구암집(龜巖集) 머리말

구암집 옮긴이 성기욱



구암(龜巖) 선생 문집은 원집(原集)·속집(續集)·별집(別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구암집(龜巖集)>으로 되어 있고, 각 권마다 천(天)·지(地)·인(人)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문집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구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 후인의 편의상 구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집(原集)·속집(續集)·별집(別集)에 대한 구분은 각 권마다 후인이 서문을 쓰면서 밝히고 있으나, 후인의 편찬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구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개인문집이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구암집(龜巖集)> 원집(原集)·속집(續集)·별집(別集)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선생의 시문은 생전에 잘 정리되거나 보존되지 못했다. 원집(原集)은 1639년, 후학 허목(許穆)에 의해, 사천(泗川) 유생들이 수집해 온 원고를 정리하고 발문을 썼다. 서문은 허목의 부탁을 받은 조경(趙綱)이 썼다. 숙종 때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조경(趙綱)은 대제학과 형조·예조판서를 거친 인물이다. 1641년 5월 구암서원(龜巖書院)에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하였다. 속집(續集)은 1748년경 어유성(魚有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지방관으로 재직 중이던 어유성은 사천(泗川) 유생들의 청탁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온 초고를 대략 원집의 체례에 따라 편집 교정했다. 속집에는 구암 선생이 12세 때, 영남지방에서 실시한 여름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할 때의 글인 <홍문연도부(鴻門宴圖賦)>가 실려 있다. 항우와 유방의 홍문(鴻門)에서 벌인 긴박한 연회상황에 대한 그림을 보고 읊은 이 부(賦) 작품은, 12세 소년이 썼다고는 결코 믿을 수 없을 만한 걸작이라 생각된다.

별집(別集)은 1902년 임인년(壬寅年)에 후손 태환(泰煥) 등의 노력으로 원집과 속집의 중간본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모아 엮었다. 원집과 속집에 비해 분량은 적지만, 퇴계선생과 주고받은 편지 몇 편은 주목을 끈다. 구암 선생과 퇴계선생의 관계는 각별하여, <퇴계집(退溪集)>에는 구암 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138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안부와 승진 축하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으나 주자 서적에 나타난 의문

에 대해 묻고 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쉽게도 구암 선생의 편지는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니, 퇴계선생의 답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적유(摛遺)'라고 명명된 단편적인 글모음에서는, <도산제자록(陶山諸子錄)>이나 <경주서악지(慶州西岳志)> 등에 나타난 부분적인 기록을 발췌해 놓고 있어서, 선생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발문은 전의(全義) 이종기(李種杞)가 썼다.

본서의 저본은 1902년 간행된 영인본이다. 중간본은 현재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원문은 번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사의 과정에서 의심되는 글자는 영인본과 대조하면서 작업했다. 문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詩)·소(疏)·지(識)·발(跋)·잡저(雜著)·차자(劄子)·계사(啓辭)·전(箋)·찬(贊)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형식을 막론하고 선생의 고결한 인품과 학문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선생을 애도하는 후인들의 제문과 만장(挽章) 등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천학비재(淺學非才)한 능력으로 선생의 학문의 깊이를 이해하여 번역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말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성리학 또는 역(易)에 대한 용어 등은 파상적인 표현으로밖에 바꿀 수 없었다. 운일(雲日)이 '제왕'에 비유되거나, 우의(牛蟻)는 '병들다'는 뜻이며, 종상육수(鍾祥毓秀)가 '훌륭한' 뜻으로 쓰인 경우 등 현대적 의미로는 풀이되지 않는 용어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좌춘입설(坐春立雪)로 '학문의 매진'을 나타내는 경우, 설령 이해는 될지라도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구암집>에 대한 주석본 작업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판본의 미비와 이해할 수 없는 몇 구절과 단락을 제외하고는 있는 힘 다했으나, 한 시대를 풍미한 명유(名儒)의 모습을 개략적이거나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진한 부분은 제현들의 질책 바란다. 부족하나마 본서의 발간을 계기로 선생에 대한 후손과 후인 및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후원이 더해져, 선생의 충효정신 및 심성 수양의 실천 정신이 널리 함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년 12월 19일 구계서원(龜溪書院) 명 의재(明義齋)에서

구암선생 탄신500주년 기념사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회장 장창현



반갑습니다.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회장입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시고 휴일임에도 사천이 낳은 국현 구암 이정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탄신행사 주인공 구암 이정선생의 위대한 인품을 숭모하면서 행적과 치적을 알면 참석하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조선중기 1512년 음력 12월 23일 500년전 바로 오늘, 남쪽 고을 사천 구암에서 사천이씨 이담의 장남으로 태어나 12세때 경상도 하과에 장원급제하고 25세 때 중종 31년 문과 별시에 장원 급제한 영특한 인물이었으며, 네분의 임금 - 중종임금, 인종임금, 명종임금, 선조임금의 신하로서 사헌부 감찰, 사간원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의 벼슬을 두루 거친 백관으로 백성의 뜻을 받들어 임금님을 섬긴 문신이었습니다.

외직으로는 영천·선산군수, 청주목사, 경주부윤, 순천부사 다섯 고을의 수령으로서 정사를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경주부윤 재임시 민심이 혼란스러울 때 선정을 베풀어 훼손되어진 신라 왕릉을 복원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지금의 찬란한 신라문화가 경주에 있게 한 존경하는 현관이었습니다.

교육진흥과 학문에 뜻을 두고 경주에 서약서원, 순천에 옥천서원, 사천 구암에 구계서원 3곳의 정사를 세워 배움의 기틀을 다졌고,

학문의 대가이신 신재 주세붕, 남명 조식선생과는 교우로 지냈으며 특히 퇴계 이황선생이 가장 아끼던 학자로서 성리학의 묘리를 함께 터득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의 큰 인물로서 뛰어난 학문적 성취와 덕망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아 오늘 탄신 500주년을 맞아 선생의 행적과 치적을 정리하는 뜻있는 행사를 통해 구암 이정선생의 덕과 학문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와 고을을 빛낸다" 하였습니다. 사천지명 6백년이 된 지금 구암 이정선생이 위대한 인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매년 봄에 구암 이정선생 장원급제를 기리는 과거(科擧)시험재현 "구암제"행사에 전국 유림, 학자, 시인 등 연750여분이 응시하여 한시 백일장을 하였고, 올해는 4회째를 맞아 와룡문화제와 함께 시화전도 개최합니다.

잠시후 제11회 학술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정우락, 이영호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구암의 삶과 학문에 관한 성기욱 연구교수님의 강연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사천문화원에서 15권의 구암 이정선생과 관련한 연보와 문집, 학술지가 발간 되었습니다만 오늘 탄신 500주년을 맞아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공동으로 원집 속집 별집을 총정리 한 구암집을 발간하여 봉정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선생의 뜻을 담아주신 정만규 시장님, 행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사천문화원 박동선 원장님, 기획을 담당해 주신 이은식 문학박사님, 번역 편집을 맡으신 성기욱 연구교수님,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원근에서 참석하여 주신 내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의 탄신 행사를 통해 사천이 배출한 구암 이정선생께서 문신으로, 목민관으로, 대학자로서 학문을 복돋으시고 베푸신 선정에 대해 더 큰 천양있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내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암집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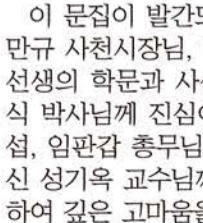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회장 장창현



조선중기의 큰 인물 구암 이정선생이 사천에서 출생하심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릴적부터 학문이 뛰어나 청운의 뜻을 품으셨으며, 25세 때 문과 별시에서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몸담아 4대의 임금을 섬기면서, 높은 벼슬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외직으로는 선산군수와 청주목사, 경주부윤, 순천부사 등 5개 고을의 수령을 거치면서 목민관으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문신인 동시에 훌륭한 학자로서 정말 훌륭하신 선생의 학문과 사상 및 두루 베푼 선정과 깊은 효심을 널리 알리지 못해 후인으로서의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인 연구나 논문 및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선생의 업적을 어느 정도는 알리고 정리한 바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선생의 문집 번역 완역본을 내지 못했습니다.

본회에서는 사천문화원과 함께 선생 탄신 500주년(음력 임진년(壬辰年) 12월 23일, 양력 계사(癸巳)년 2월 3일) 기념일을 맞이하여 구암집 완역본을 발간하게 되었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집이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만규 사천시장님, 박동선 사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은식 박사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영섭, 임관갑 총무님과 번역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성기욱 교수님께도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를 대표하여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구암집 축간사

사천시장 정만규



구암 이정(1512~1571)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구암집 발간은 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구암 이정선생은 12세에 경상도 하과에 급제하여 25세인 중종 3년에는 문과별시에 장원급제한 우리 지역 출신 유학자입니다.

선생은 20여 년간 관직생활을 하면서 내직으로는 넷 임금을 섬긴 유신으로 조정에 들어서는 백관의 모범이 되고 외직으로는 다섯 고을의 수장으로서 청렴결백한 관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주의 서약서원, 순천의 옥천서원, 사천의 구계서원 등을 세우며 유생들의 학문 발전에 힘쓰며 퇴계이황, 남명 조식과 함께 학문을 나누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천문화원을 중심으로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와 사천이씨 종친회 등에서 협심하여 구암집을 편찬, 발행한 것은 시민들의 충·효 정신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의 심신 수양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고장은 예부터 충·효의 실천을 널리 미덕으로 삼았던 고장으로서 <구암집> 출판을 계기로 우리 지역민들 간의 화합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거듭 양양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암집> 발간을 위하여 애써 오신 박동선 문화원장님과 장창현 대관대유계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암과 구암학 연구의 현대적 의미



● 구암 탄신 500주년에 학술현장으로 모셔내어 재조명

지난 2월 3일(음력 12월 23일) 구계서원과 사천고등학교에서 구암(龜巖) 이정(李楨)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구계서원 대관대 유계회가 주최하고, 사천문화원이 주관하였으며, 사천시 후원으로 이날 개최된 일종의 선비문화행사는 아마도 사천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4년 전부터 사천시·사천문화원 주관으로 선비문화행사인 한시백일장, 구암학 학술세미나를 내용으로 하는 “구암제”를 매년 하고 있지만, 구암 탄신 기념행사는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성해야 할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날 행사장을 꼭 메운 참석자들은 ‘도대체 구암이 어떤 분이길래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탄신을 축하하고, 우리가 본받을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서 구암 선생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대다수가 알려고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구암을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열정은 이날 사천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구암학 학술세미나장의 참가인원과 열띤 토론 분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간소하고 조촐하게 치러진 탄신 기념행사였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 중기 대 학자이면서 행정가인 구암 선생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암 선생은 1512년(중종 7년) 음력 12월 23일 사천읍 구암리에서 태어났다. 12세 때에 경상도에서 실시하는 하과(夏課) 장원급제, 17세 때 성균관 학관, 25세 때 문과별시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하였고, 그 후 조정의 6조 참의와 대사간 등의 내직과 영주·선산·청주·경주·순천 등의 외직을 두루 거쳤으며, 각종 간행저술 도서가 140여 편에 달할 정도로 학문과 교육을 숭상하고 실천한 영남의 대표적인 행정가로 알려지고 있다. 문헌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 구암 선생의 심오한 학문과 교육·선정사(善政史)를 보노라면 한국사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고, 진작부터 그 업적을 챙겨보지 못한 점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1988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구암집」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있는 후 구암에 관한 현대적 연구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사천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구암학술대회를 통하여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한국사에서 구암의 흔적이 문헌뿐 하였다가 이제 늦게나마 학술현장으로 모셔내어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구암 선생은 관직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한 학자적 관료
구암에 관한 연구동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경북대학교 정 우락교수가 발표한 「구암 이정 연구의 반성적 모색」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구암 선생은 관직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성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국왕의 포상과 백성의 칭송을 받을 만큼 유능한 관료였다. 구암 선생에 대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그의 학문과 사상의 요체(要諦) 및 형성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논의되었지만, 그의 학문과 사상의 계승에 관하여는 논의가 거의 없다는 한국국제대학교 송준식 교수의 지적토론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구암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과 사상의 요체 및 형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 2012 구암제 학술세미나

● 일시 : 2013년 2월 3일(일) 14:00
● 장소 : 사천고등학교 세미나실



구암 선생에 대한 연구는 「구암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암집은 원집·속집·별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집은 1571년(선조4년) 7월 16일 구암 선생이 별세한 후 68년 뒤인 1639년(인조17년) 구계서원에서, 속집은 177년 뒤인 1748년(영조 24년)에, 별집은 331년 뒤인 조선 말기 1902년에 각각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사천문화원에서는 2002년 구암집의 번역을 처음 시도하였으나 초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2012년 12월 구암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전부 번역한 「구암집」을 내놓았다.

「구암집」 원집은 후학인 허목(許穆)이 발문을 쓰고, 조경(趙綱)이 서문을 썼다. 허목은 대사헌과 우의정을 지냈고, 조경은 대제학과 판서를 지낸 학자이다. 허목은 발문에서 “훌륭한 그의 학문은 효도와 우애로부터 성명(性命)의 심오함으로 확장되었고, 만사와 만물에까지 도달되었다. 그리고 그의 학문요강은 예를 알고 본성의 완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으며, 이로써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며, 이로써 학자들에게 말하니, 당시의 사대부 대다수가 그를 종(宗)으로 추대했다. 지금 공이 돌아가신지 70년 가까이 되었으니, 60세 이상의 여러 유생들 중 한 사람도 그 당시 사람이 없으며, 단지 공의 사당만이 만죽산(萬竹山) 아래 바닷가에 있을 뿐이다.” 하고, 또 “지금 그의 유고(遺?)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 병란에 산실된 남은 부분이 그나마 전해지기는 하지만 10분의 2-3일 뿐이다. 사천지방의 여러 유생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한두 마디의 짧은 말과 글도 후세에는 귀중하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여 없어지지 않을 방법을 의논했다.”고 하였다.

조경은 원집 서문에서 “구암 공은 20세 전에는 규암송인수 선생을 스승으로 받들었으며, 조정의 관리에 이르렀던 분이였다. 또한 태학에서는 퇴계선생을 모시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써 의지했으니, 그러한 즉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배우는 자 중에서 누가 이에 미칠 수 있었겠는가? 이 문장 또한 내가 즐겨 보았던 바로 그 문장이니, 아아! 성대하도다.”하고, “공의 성씨는 이(李), 휘는 정(楨), 자는 강이(剛而)이며, 세상에서는 구암 선생이라 불리었다.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독실해졌다. 선조임금이 정치를 할 때 만나게 되자, 곁에 보좌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어진 신하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날기를 바라듯이 갈망하는 것 같았다. 공이 결국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자, 사림(士林)들의 애통함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이 돌아가신지 60년이 넘었으나, 사천지방의 학자들이 공의 덕을 연모함은 처음과 다를 없으니, 이미 학당에서 제사지내왔으며, 전란 속에서

법학박사 李 善 永 부산화수회 회장(참지공파 24세)이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학자의 학문이나 사상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암의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는 경주의 서약서원, 순천의 옥천서원, 사천의 구계서원에서 배운 문하생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가 일구어 낸 학문연구와 교육의 성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쓰임이 되어야 한다. 학문과 지식을 베풀자리의 도구로 삼을 수도 없거니와, 과거시험으로 관직을 얻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학자를 관직에 등용하여 자신의 학문을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구암 선생을 학자적 관료라 하는 것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한 것만이 아니라 관직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학문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일구어 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구논문을 표절하고 대필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고위 관료, 정치인이 많다 하여 이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사학위는 학자의 상징이긴 하나,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편의 연구실적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위를 학자로 포장하여 베풀자리의 도구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 구암 별세 330년 뒤 후학이 완성한 「구암집」
구암 선생에 대한 연구는 「구암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암집은 원집·속집·별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집은 1571년(선조4년) 7월 16일 구암 선생이 별세한 후 68년 뒤인 1639년(인조17년) 구계서원에서, 속집은 177년 뒤인 1748년(영조 24년)에, 별집은 331년 뒤인 조선 말기 1902년에 각각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사천문화원에서는 2002년 구암집의 번역을 처음 시도하였으나 초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2012년 12월 구암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전부 번역한 「구암집」을 내놓았다.

「구암집」 원집은 후학인 허목(許穆)이 발문을 쓰고, 조경(趙綱)이 서문을 썼다. 허목은 대사헌과 우의정을 지냈고, 조경은 대제학과 판서를 지낸 학자이다. 허목은 발문에서 “훌륭한 그의 학문은 효도와 우애로부터 성명(性命)의 심오함으로 확장되었고, 만사와 만물에까지 도달되었다. 그리고 그의 학문요강은 예를 알고 본성의 완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으며, 이로써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며, 이로써 학자들에게 말하니, 당시의 사대부 대다수가 그를 종(宗)으로 추대했다. 지금 공이 돌아가신지 70년 가까이 되었으니, 60세 이상의 여러 유생들 중 한 사람도 그 당시 사람이 없으며, 단지 공의 사당만이 만죽산(萬竹山) 아래 바닷가에 있을 뿐이다.” 하고, 또 “지금 그의 유고(遺?)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 병란에 산실된 남은 부분이 그나마 전해지기는 하지만 10분의 2-3일 뿐이다. 사천지방의 여러 유생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한두 마디의 짧은 말과 글도 후세에는 귀중하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여 없어지지 않을 방법을 의논했다.”고 하였다.

조경은 원집 서문에서 “구암 공은 20세 전에는 규암송인수 선생을 스승으로 받들었으며, 조정의 관리에 이르렀던 분이였다. 또한 태학에서는 퇴계선생을 모시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써 의지했으니, 그러한 즉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배우는 자 중에서 누가 이에 미칠 수 있었겠는가? 이 문장 또한 내가 즐겨 보았던 바로 그 문장이니, 아아! 성대하도다.”하고, “공의 성씨는 이(李), 휘는 정(楨), 자는 강이(剛而)이며, 세상에서는 구암 선생이라 불리었다.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독실해졌다. 선조임금이 정치를 할 때 만나게 되자, 곁에 보좌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어진 신하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날기를 바라듯이 갈망하는 것 같았다. 공이 결국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자, 사림(士林)들의 애통함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이 돌아가신지 60년이 넘었으나, 사천지방의 학자들이 공의 덕을 연모함은 처음과 다를 없으니, 이미 학당에서 제사지내왔으며, 전란 속에서



남은 유고를 모아, 문집을 간행하여 후세에 전하려 하니, 매우 훌륭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구암학 연구는 가문사학(家門史學)으로 전락되지 말아야

구암 선생이 돌아가신 후 68년이 지나서야 그 시대 대사헌과 우의정을 지내고, 대제학과 판서를 지낸 후학이 중심이 되어 「구암집」 원집을 발간하였으며, 177년 뒤에는 속집을, 331년 뒤에는 별집을 발간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오늘에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분들의 학자정신이 아니었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임진왜란(1592~1596)이라는 혹독한 전란을 거치면서, 없어지고 남은 유고(遺?) 10분의 2-3을 정리하여 원집을 발간하였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암 선생의 경상도 하과(夏課) 장원급제문인 흥문연도부(鴻門宴圖賦)는 12세 소년이 쓸 수 있는 글인가 할 정도로 만인을 놀라게 했고, 문과별시의 장원급제를 기뻐하며 포부를 밝힌 축망부(祝網賦)에서도 장원급제자의 선발과정으로 봐서 25세 청년의 깊은 학문과 총명함을 엿볼 수 있다. 장원급제자의 선발은 성균관, 한성, 평안도, 함경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초시(初試)를 거쳐 선발한 대과 급제자 33명 중 임금이 임석한 전시(殿試)에서 3명을 뽑고, 그 3명 중 가장 으뜸가는 한사람이 장원급제자이다. 그러나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등용된 것은 구암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일 뿐이고 구암학의 성립과는 별개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암에 대한 분야별 학문적·사상적 연구과제가 제시되었고, 구암학 연구를 위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정리해서 번역해 내는 일, 일반인이 구암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암평전”을 쓰는 일 등의 작업이 있어야 구암학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라 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작업이 가문사학(家門史學)으로 전락된다면 구암학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는 지적과 충고도 있었다. 「구암집」이 발간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일천(一喘)하다. 1902년 별집이 간행된 후 1911년부터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구암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다. 사학(史學)은 정통적인 역사체계, 즉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패사(稗史)가 그 바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는 정사를 번역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한 문종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책무이다. 정사를 오역(誤譯)함은 물론 이거니와, 정사를 번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 또한 중대한 역사의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는 오직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적인 정통 한국사학자들의 몫이다.

전국 곳곳의 역사, 문화 유적지에는 조선시대를 이끈 역사적 인물과 학자를 소개하여 온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의 구암 선생만은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별세 후 440년, 「구암집」 원집이 나온 후 370년, 별집으로 「구암집」을 완성한 후 110년이 된 지금까지 구암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역사적 인물로서 그 반열(班列)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인가? 정부와 관련단체에 대한 문종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문종에서는 그 사연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다. 전해지는 기록만 보더라도 구암 선생은 500년 전 그 시대의 관료로서, 학자로서 백성을 위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 개원초등학교 1학년 이강민
선무량공파 23세 이정배(하동 진교)의 손자



나무는 좋겠다.
쑥쑥 자랄 수 있어서

나무는 좋겠다.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나무는 좋겠다.
새들과 친구할 수 있어서

나무는 좋겠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위 시는 부산진구청에서 주최하는 2013년 초중고 문학백일장 대회에서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새 번역 구암행장(龜巖行狀) 중 후반부

정 두 (鄭斗)

연산군 시절, 선대의 현인인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선생께서 순천부에 귀양 와서, 성 서쪽의 옥천(玉川)위에 살았는데, 돌을 쌓아 누대를 만들고, 임청대(臨淸臺)라고 이름 지었다. 그 유적은 흔적이 여태까지도 완연했다. 선생은 부임 초에 제일 먼저, 이 누대를 방문하여, 날이 저물 때까지 사모의 정에 잠겨, 배회하면서 차마 떠나지 못했다. 나중에 누대 위에 경현당(景賢堂)을 건립하고, 봄가을로 제사지냈으니, 정기적인 제사로 계속 전해지기도 하였다. 또 한 옥천정사(玉川精舍)를 그 옆에 세우고, 선비들의 학문 수양장으로 삼았다. 또한 경현록(景賢錄)을 간행하여, 스승과 벗에 대한 연원을 서술했는데, 계통과 이력이 특히 상세했다.

병인년(丙寅年) 4월, 모친께서 병이 들자, 선생은 밤낮으로 약을 대령하면서, 옷 허리띠를 풀지 않은 채, 병수발에 힘을 기울였으나, 미음도 넘기기 못한 날이 계속되다가, 그 달 25일에 돌아가셨다. 운구를 고향으로 만들어 부친의 무덤 옆에 장사지냈다. 이 때 선생의 나이 50이 넘었는데, 평소 앓던 병 때문에 기력이 쇠약해졌으나, 상제의 예를 다함에 영전 앞에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다. 융경(隆慶) 원년, 정묘년(丁卯年)에 명종께서 승하하셨는데, 선생은 이 때 무덤 옆 초막에 거거 중이었다. 갑작스런 부음을 듣자, 통곡이 부모의 상을 당한 이상이었다. 기절한 후 깨어나, 초막 밖에 장막을 설치하고, 임금 계신 북쪽을 향해 분향하면서, 거친 벼로 지은 참치복(斬衰服)을 지어 입으셨다. 무신년(戊辰年)에 모친의 3년 상이 끝나도, 여전히 명종임금의 상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 1년 동안 기력이 너무 쇠약해져,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형편이었다. 친척과 오랜 친구들이 역지로 고국물을 권하니, 마지못해 따랐다. 6월에 부호군(副護軍)을 제수 받고, 9월에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겸 국왕의 교서 등을 작성하는 지제교(知製敎)를 제수 받았으나, 병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 상소로써 사양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엎드려 말씀드리옵건대, 이번 달 7일, 승정원(承政院)의 교지를 삼가 받들고 보니, 신에게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제수하시었습니다. 관원이 말을 타고 달려왔기에, 경황 중에 명령을 받들었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엎드려 감격에 겨운 채,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금년에 60이 다되어 가는데, 병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생각은 날로 어리석어지는데, 눈병 때문에 볼 수조차 없습니다. 몇 년간 이러한 까닭에 사물을 대하듯 알아보지 못하고, 사물에 접촉해도 형체가 희미하니, 장님과 마찬가지로, 이미 쓸모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비록 힘써 나아가 폐하의 수레바퀴 아래서, 일월과 같은 밝은 빛을 바라보고자 하지만,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근심걱정하며, 엎드려 허물에 대한 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은 변변치 못한 가문인데, 바닷가의 궁벽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견문도 부족하고, 또한 도리의 행함도 부족합니다. 실령 벼슬길에 나아가도 해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없으니, 하물며, 부제학(副提學)이란 자리는 올바른 인물을 뽑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하는 직책입니다. 어찌 분에 넘치는 은총을 베푸시어, 한 나라의 중요한 기구를 목격해 해사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삼가 명령을 내려 신의 직책을 거두어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외람되게도 벼슬길에 들어서서, 네 임금을 섬겼으니,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더할 나위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도 혹심한 재앙을 만났으니, 명종께서 승하시니 일일치, 갑작스런 죽음에 정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어, 통곡소리로 미칠 길이 없었습니다. 근심걱정 없이 지내려 해도 전염병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으니, 장례식에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친의 상 기간이 끝났으나, 폐하에 대한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도 결해서 모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또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로운 명령을 거절하게 되어, 천지간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만 번 죽어도 속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손 모아 폐하를 구하는 정성스런 마음은, 오랜 병중에서도 조금도 줄어든 바 없으니, 감히 전하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전하께서는 대통을 이어받아 정치의 폐단을 말끔히 고쳐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함께 드리워진 구름을 모두 걷어내고, 해와 달처럼 크게 밝혀야 합니다. 대신 중에는 원로도 없고, 시독관(侍讀官) 중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있으니, 학문을 널리 더하던 고된, 정치의 대업은 나날이 융성해질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취하거나 버려짐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고, 사물의 기미와 조짐은 지극히 미약한 법입니다. 지금은 비록 청명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후일까지 그러함을 지키려면 더욱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군주의 마음은 만물변화의 크나큰 원천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기르는 도리는 학문의 수양과 연구에 있으며, 학문수양과 연구의 요체는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져 덕성을 지속적으로 닦는데 있습니다. 지금 초야의 선비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위로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때로는 세운 뜻이 굳세지 못해, 꾸준하게 지속하지 못하고, 늙음이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실이 기울어지는 순간은 그 본심을 잃었을 때이니, 이전과는 각각 다른 마음이어서,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하물며 군주는 숭고한 지위에 있으니, 군주의 인척과 근신(近臣) 및 총애하는 신하와 환관의 우두머리 등이 좌우에서 시중되고 있습니다. 얼핏 군주의 권태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러한 기회를 바로 파고들게 됩니다. 마음속에 달콤한 말을 들이는 그런, 진실함을 말씀드리기 어렵게 되어, 전하께서는 아침의 말만 진상하는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곡식벌레와 짐과 같은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사이에서, 굳세게 경(敬)의 마음을 지키려한다면, 하려는 바는 지금과 다를 바 없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신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청명명은 비록 믿을 수 있으나, 후일까지 지키는데, 더욱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부지런하시어 합니다. 지금 세상에 가르침으로 다스리는데 법도가 없기 때문에, 풍속은 순박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근심하고 원망하며, 군졸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소문은 흉흉하니, 가히 눈물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정이천(程伊川)의 학제를 참고하시고, 주자(朱子)의 학의로써 거듭 자제하시며 서, 주돈이(周敦頤)의 사상을 스승으로 삼아, 영재를 기르고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의 네 가지 도를 숭상하도록 하십시오. 도를 밝히는 주자학파의 학문으로 다스리면서, 공사를 변별하며, 정의로 다스리는 왕도와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霸道)를 구분하신다면, 교령으로 다스리는데 어찌 법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충신과 효자 및 열녀를 기록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풀이하여 널리 알리십시오. 삼가 충, 효, 의(義), 용(勇), 인(仁)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널리 펼치십시오. 교화와 훈육으로 점차 물들어 저절로 변화하게 하십시오. 풍속이 변화하여 순후함으로 되돌아간다면, 어찌 불순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를 가려 뽑아, 수령에 임명

하시시오. 세금을 줄이시고 흠이비와 과부에게도 은혜를 베푸십시오. 농부들에게는 정성들여 농사짓는 공로를 세우게 하십시오. 백성들에게는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보살피는 즐거움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한 즉 백성들은 어찌 근심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부패의 범람을 단절시키기 위해, 당나라 후기에 뇌물써 지휘자에 오르는 일과 같은 부패한 풍조를 개혁하여, 지혜와 덕을 갖춘 장수를 선발함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훌륭한 기상과 용기를 권장하고 상을 주십시오.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앉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절도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대가 끊어지고 이웃과 친척까지 해가되는 일을 제거하십시오. 그러한 즉 군졸들이 어찌 사기가 저하되고 피로에 지치겠습니까?

맹자가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으며, 좋은 법도만으로는 그것이 저절로 행하여지지 않는다." 다스림으로 바로잡으려면, 현인을 얻어 어진 정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기회는 오직 전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공경으로 그러함을 세울 수 있고, 정성으로 그러함을 실행할 수 있다면, 털끝만큼의 혼란도 없을 것이며, 한 호흡의 순간도 단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즉 정치를 행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선대의 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한결같은 절제는 천 가지 사악함을 대적하기에 충분하다. 한결같은 정성은 만 가지의 거짓을 소멸하기에 충분하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사기 바랍니다. 상제(喪制)가 삼가 올랐습니다.

임금께서는 교지를 내려 그러함을 칭찬하셨다. 또한 몸조리 잘 할 것을 타이르시고, 이어 정4품 호군(護軍)을 수여하셨다. 기사년(己巳年) 9월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제수 받고, 상호군(上護軍)을 수여받았으나, 병 때문에 부임하지 못했다. 신미년(辛未年) 6월, 발에 종기가 났는데, 침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자, 탄식하며 "부모님께서 온전하게 내 몸을 주셨는데, 나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불효자라다." 라고 말하면서 흐느꼈다. 7월 병자(丙子) 일에, 제사지내는 몸체 방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60세였다. 부음을 들은 임금께서는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내려주고, 제문을 지어 조문시켰다.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고인의 도량과 재능은 크고도 깊었으며, 모습은 엄숙하고도 조용했다. 일상의 말에도 반드시 삼갔으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이었다.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는 너그름이 있었으나, 자신을 다스림에는 법도가 있었다. 바탕이 확실했으며, 경사에 관한 학술로써 임금을 보좌했다. 가정의 모범을 충성으로 옮겨주고 그 힘을 모두 쏟았다. 재능을 자랑하지 않아서 작은 일에 썼으며, 벼슬에 큰 뜻이 없었다. 먼저 다스림의 기강을 세우고, 문장으로 보좌하며 덕을 숭상했다. 부하관리들을 위엄으로 복종시키니, 백성들의 생업에 편안히 임했다. 고인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기풍은 비석에 남아 있으니, 맑은 기풍은 멀리까지 미칠 것이다. 전대와 후대에 걸쳐 식물이 융성하니, 임금께서는 특별히 큰 벼슬을 내렸던 것이다. 마침내 승지(承旨)의 직책을 맡아, 언제나 물 흐르듯이 간언하고 의문했다. 그러함을 팔간 상소는 상소했으며, 그야말로 절조가 훌륭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선현을 장사지내주니, 경주 지방에서 바로 이러한 도리를 행했다. 흠으로 왕릉 등을 복돋우니, 이 또한 어진자의 일이다. 호남 지방의 한 고을은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칭해졌으나, 교활함을 물리치고 자비를 다하며,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베풀었다. 사당을 건립하고 현인의 덕을 존중하여, 그러한 기풍을 수립했다.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후생을 깨우치는데 힘썼다. 선정을 베풀은 관리가 떠나감을 만류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대가 오랜 기간의 삼년상을 마치자, 그대에게 경연(經筵)의 직책을 맡겨, 논의로써 나의 부족함을 돕도록 명했다. 그대가 사양하여 오히려 하지 않아서, 아득히 멀어지 만나기 어려웠으나, 한 통의 상소문은 모두 참된 마음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찌 오늘 그러한 본보기에 대한 영원한 이별을 말하게 하는가? 그대는 말년에도 삼가 학문을 좋아하셨으니, 집에서 기거하는 몇 년 동안, 뜻은 오직 사물을 연구하고 뜻을 넓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두었다. 학문의 방향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근본방법에 두었으며, 반드시 신비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조예가 더욱 깊어졌다. 충성스런 말을 이 세 볼 수 없으니, 갑작스럽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간소한 제물이나 보내어, 나의 슬픔을 기탁하노라!

선생은 침착하고 의지가 강했으며 행동이 단정하여 망령되어 말하거나 못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의지한 모습을 보였으며, 커서는 문사의 문장을 학문으로 삼았다. 평생토록 빠른 말소리와 급히 서두르는 얼굴빛을 보이지 않았으나, 설령 집안사람일지라도 기뻐하는 모습이나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학문은 제자백가의 이단사적은 보지 않았으며, 반드시 사서오경 및 송대 유학자의 문장을 취했다. 소매를 바로잡고 단정히 앉아 침식을 잊고, 고개 숙여 독서하고, 고개 들어 생각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의리의 무궁함을 알아, 선비와 친구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한 반드시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반복하여 밝히니, 학문이 폭넓어졌다. 그러나 마음에서 그치고 드러내지 않았으며, 몸으로 실천했다. 스스로 문장이 부족하다 말하면서, 비록 문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간혹 시가를 서로 주고받는 자들 사이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성리학에 대해 드러내지 않음이 없었다. 자연히 정지(程子)와 주자(朱子)의 학문 여운이 일치하여, 스스로 세속의 기호에 동조하지 않았다.

일찍이 퇴계선생을 스승으로 보셨는데, 학문을 향한 일념은, 일편 단심과 같이 빛나고 선명했다. 경주에서 재직할 때에는, 약간의 양식을 싣고 수레를 몰아 해마다 가서 문인인사를 드렸는데, 벼슬이 낮은 사람이 아첨한다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무릇 벼슬로 떠돌거나 집에 있는 지 수십 년 동안, 지은 문장이 쌓였으니, 거의 허송세월 한 적이 없었다. 의문이나 반드시 질문하고, 실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문을 구했으며, 한두 마디의 짧은 말과 글일지라도 반드시 모아 엮었다. 상대방을 믿고 의지할도 그 단독함이 이와 같았다. 중종임금 시절, 성리학에 관한 서적을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이 미진하기도 했는데, 역시 퇴계선생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며 개정했는데, 서로 개정에 대한 발문을 써 주었다. 예를 들면 <공자통기(孔子通記)> · <(이정수언(二程粹言))> · <정씨유서외서(程氏遺書外書)> · <이러원원속록(伊洛淵源續錄)> · <염락풍야(濂洛風雅)> · <격양집(擊壤集)> · <연평담문(延平答問)> · <주자시집(朱子詩集)> · <범태사당강(范太史唐鑑)> · <경경산가례의절(丘壑山家禮儀節)> · <薛文淸讀書錄(薛文淸讀書錄)> · <호경재유록(胡敬齋遺錄)> ·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 · <이학록(理學錄)> · <의무어선생집(醫無閔先生集)> 등의 서적 등은, 반드시 역임한 고을에서 간행했다. 비록 권력 있는 한직에 있을 지라도, 만약 성리학 서적이 경전에 도움은 되지만, 판본이 없을 경우를 보면, 힘써

고을의 수령들에게 권하여, 반드시 간행한 후에 그만두었다. 또한 일찍이 <성리대전(性理大全)>과 여러 서적 중에서 가장 요긴한 내용을 간추려서, 한 권으로 만들었으니, <성리유편(性理遺編)>으로 이름 지었다. 이름 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책을 만들어 선비들을 만나면, 청하지 않아도 항상 나누어 주었다. 성리학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은, 후학의 마음을 기쁘고도 은혜롭게 한다."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았다. 학문을 좋아하고 힘써 행하는 일은 만년에 이를수록 더욱 독실해졌다. 옛 성현의 말씀에서, 학자들에게 도움 되는 바가 있으면, 그러 함에 대해 반드시 그때그때 기록해 두었으니, <구암일과(龜巖日課)>로 이름 짓고, 자료를 모아 분류한 다음, 종류에 따라 다시 한데 묶어 정리함으로써, 일상사를 연구에 대해 유추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하고자 했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했다.

부모에 대한 일은, 진실로 그러한 효도는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어린 시절, 언제나 몸소 어부의 집에 가서, 맛있는 생선을 가져왔으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섬기기를 다했다.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밤에는 잠자리를 정하고, 아침에는 안부를 살폈다. 비록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에도, 처자식의 부양에는 부모를 부양하듯 조금의 게으름도 없었다. 서모가 계셨는데, 섬기기가 친아들 이상이었다. 또한 남동생 한 분과 여동생이 돌아있는데, 그들과 사이가 좋아 우애의 정에 변함이 없었다.

선조를 받드는 일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 안의 사당의 참배했다. 지극한 추위와 더위 또는 비가 내리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초하루와 보름의 제사이외에도, 철따라 지내는 제사도 반드시 몸소 친히 행했다. 만약 병 때문에 직접 모실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워하며 가슴앓했다. 제사날이 돌아오면, 10일전부터 밖에 나가 지 않고 집안에서 풍과 마음을 깨끗이 했는데, 생각처럼 매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고, 의복과 관을 단정히 갖추고, 삼배 하리따름 하루 종일 풀지 않았다. 제사지낸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휴식을 취했다.

임금을 모시는 일은, 몇 차례 나아가지 않아서 오래 조정에 머물지는 않았지만, 상소로써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사물의 이치를 통찰하여 지식을 확고히 하며, 자신의 뜻을 진실 되게 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는 일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학문을 강조하고 간언을 받아들이게 하는 직무에서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물러나게 되었는데, 역시 하루도 조정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듣는 날이면 되는 이야기 들으면, 말에 기쁨이 더해졌고, 한 가지 일에 잘못이 있으면, 근심스런 얼굴로 변했다. 임금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벼슬에 나아가면 그렇지 않은 간에 비로소 나타났었다. 오직 참되고 충성스런 마음뿐이었으니, 돌아가신 후에도 비로소 끝났을 뿐이다.

관직을 수행할 때에는, 자신은 청렴의 법도를 지켰으며, 백성은 인(仁)으로 품었고, 공경했으며, 너그로우면서도 엄격했다. 위엄으로 정무를 관장하고, 공명정대하게 송사를 처리했다. 법을 왜곡시키는 관리에게는 용서가 없었으며, 횡포를 부리거나 간악한 관리는 방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교화에 힘쓰고 학교를 일으키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다. 이는 곳마다 효자와 열부를 찾아내어, 그 집을 회복시키고, 후손을 도왔다. 마을에 부모에 대한 효도와 우애가 깊은 사람이 있으면, 비록 천인일 지라도, 마치 반객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다. 뛰어난 공적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려 송상했으며, 위로는 선비로부터 아래로는 아전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력 2월과 8월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나 사직의 제사를 지낼 경우, 반드시 몸소 나아가 예를 다했으며, 제기와 제물은 지극히 청결함에 힘썼다. 가뭄이 들었을 경우 또한 반드시 몸소 빌었는데, 아무리 띄워붙이 내리쬐는 날일지라도, 엎드려 정성을 다했다. 빛나는 인격을 이룸으로써, 친구의 사기에 있어서도 경솔함이 없었다. 친구와의 교류에서 한 시대의 명사를 거론해 보면, 정4품의 사인(舍人) 정항(丁煥)은 거제(巨濟)에 귀양 와 있었으며, 사간원 정6품의 김관상(金鸞祥)은 남해에 귀양 와 있었다. 선생은 배를 타고 방문했는데,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이때에는 권신과 간신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귀양살이 하는 사람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 반드시 그를 중상모략하려 했다. 사람들은 선생의 그러한 위태할 때에 말렸으나, 선생은 한 웃음에 부치고, 왕래에 더욱 힘썼다.

선생은 고아하여 산수를 좋아했으므로 매일 좋은 곳에 가서 거닐면서 유유자적했다. 남명선생과는 도의적 사상이 일치하여 매우 돈독했다. 남명선생이 지리산 덕산동에 거처를 마련하자, 선생은 또한 그 가까운 곳에 땅을 마련했다. 속세를 떠난 동년자의 결의를 보였으며, 노년에는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고의는 자못 끝나지 않았다. 선생은 오직 이리했으니, 검불부스러기만한 혐의도 없었다. 그 정해진 학문적 힘은 견고했으며, 그릇의 크기는 매우 컸으니, 대체로 이와 같았다.

노년에는 선영 곁에 서재를 갖추고, 현판을 구암정사(龜巖精舍)로 이름 지었다. 그 왼쪽은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져 덕성을 닦는다'는 뜻의 거경재(居敬齋)로 이름 짓고, 오른쪽은 '의로움을 밝힌다'는 뜻의 명익재(明義齋)로 이름 지었다. 상복기간이 끝나도, 병을 핑계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학문과 심성을 닦았다. 공을 한 근원으로 거두어들이니, 조예는 더욱 깊어졌다.

노년에는 <역경(易經)>에 깨달음이 지극하여, 더욱 힘써 단서를 풀어내었다. 항상 선비와 벗에게 "내가 일찍부터 어떤 일에 뜻을 두었는데, 만약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기회를 더 준다면, 크게 성취할 것 같은데, 미치지 못할 까 두렵다" 고 말하면서, 탄식하곤 했다. 서재의 네 벽에는 사면에는 주자(朱子)가 친히 쓴 글의 필사본인 '연비어약(鰲飛魚躍 : 천지간의 도리는 어디나 있다고 역의 괘를 설명하는 潛龍勿用 : 분한 생각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는다)' 등의 문구를 걸어두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아직도 이러한 마음은 일부러 지어짐을 면하기 어려우니, 부끄럽다' 고 말씀하셨다. 학문의 수양에 공을 들이니 노년에도 이리했던 것이다. 훌륭한 선비가 찾아오면 정성을 다했고, 교제할 때에는 겸손했다. 검소함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감가 공경으로 일을 처리했다. 친척과 친구를 도와줌에 사랑을 다 쏟았고, 고향 마을을 도울 때는 기쁜 마음을 다했다. 이러한 일들은 선생이 평소부터 쌓아온 바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그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은 정부인(貞夫人) 심씨(沈氏)를 배필로 맞이했는데, 범절교위(秉節校尉) 호부위(虎賁衛) 좌부장(左部將)을 지낸 침평(沈平)이다. 본적은 의령(宜寧)이며, 선생보다 8년 먼저 돌아가셨으니, 갑자년(甲子年) 9월(음력 19년, 1564)이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응인(應寅)으로, 종6품 선교랑(宣敎郎)이 되었다. 선무원(宣務郎) 남지(南至)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으니, 생원 호변(虎變)과 진사 곤변(鯁變)이다. 이해 9월 임신(壬申)일에, 선생은 구암정(龜巖) 강좌리(坎左)의 언덕에 선조의 묘를 따라 장사지냈다. 아예 슬프드나 선생의 가계와 이력과 학문과 행실의 대강을 서술하면서, 머리 숙여 바라노니, 후인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고치기를 바란다. 생원 정두(鄭斗) 삼가 행장을 쓰다.

* 정두(鄭斗)의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이남(以南), 호는 동산옹(東山翁)이다. 1558년(명종 13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 재주가 뛰어나고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또한 역학에 밝아 천문과 지리에 능했으며 문장에도 밝았다.



기이한 인생사



박 동 선
사천문화원장
(pds055@naver.com)

인생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 그 인연이 기이한 것이 있다. 어우야담(於于野譚)을 읽으면서 유몽인이 기록해 놓은 갖가지 인생이 지나간 세월이 그림자를 비친다. 밝은 그림자도 있고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오래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참고 해 보고자 한다.

두 이야기 모두 어우야담이 전해 준 이야기다.

『남원에 정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다. 젊어서부터 통소를 잘 불고 노랫말을 잘 지었다. 의기



가 호탕해서 구애받는 데가 없었으나 학문에는 게을렀다. 같은 마을 처녀 홍도와 혼담이 있었다. 그런데 홍도의 아버지가 토를 달고 나섰다. 정생이 학문을 게을리 해 무식하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이에 당사자인 홍도가 치고 나섰다. 혼인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이미 결혼을 허락했다면 도중에 배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딸의 말에 감탄한 홍도 아버지는 정생과 결혼을 시켰다. 2년 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몽석이라고 지었다.

임진년(1592)에 왜구가 쳐들어오자 정생은 활 쏘는 군인이 되어 왜적을 방어했다. 정유재란 시 명나라 총병(總兵) 양원(楊元)이 남원을 지켰는데 정생도 성안에 있었다. 이 때 홍도는 남복을 하고 정생을 따라갔다. 군대 안에서는 이를 아

는 사람이 없었다. 몽석은 할 아버지를 따라 지리산에 들어가 화를 면하였다.

남원성이 함락될 때 정생은 유 총병을 따라 도망쳐 나왔다. 홍도와는 서로 헤어져 간 곳을 몰랐다. 아내가 중국 군대를 따라 간 것으로 생각한 정생은 중국 군대를 따라 중국에 들어가 두루 아내를 찾았다.

정생은 아내를 찾아 중국의 도교 스님과 함께 절강 가는 배를 탔다. 달밤에 배 안에서 통소를 불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통소 소리는 예전에 조선에서 들던 곡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에 정생이 말하였다. “바로 내 아내가 아닌가? 만약 내 아내가 아니라면 어찌 이 곡조를 알겠는가?”

정생이 다시 예전에 아내와 더불어 서로 화답하던 가사를 읊조리니 그 사람이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정생이 크게 놀라 곧장 아내가 탄 작은 배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이 있던 도교 스님이 한사코 말렸다.

“저 배는 남쪽 오랑캐의 상선이어서 왜놈이 타고 있을 것이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새벽에 스님이 돈 수십냥과 장정 두어 명을 붙여 주어 잊지못한 그 남자를 찾으니 과연 정생의 아내였다. 정생 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목이 매도록 울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고 슬퍼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한편, 남원이 함락될 때 홍도는 왜적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일본에서는 홍도가 아내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장정들과 함께 되팔아 장사배에 팔려 보냈다. 홍도는 중국 장사에게 팔려간 것이었다. 홍도는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에 겨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자처럼 일을 해냈다.

정생과 홍도는 중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절강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가련히 여겨 돈과 곡식을 주어 함께 살게 하였다. 두 부부는 절강에서 아들 몽진을 낳았다. 몽진이 17세가 되었을 때 혼처를 구하는데 조선 사람이라 하여 쉽게 풀리지를 않았다. 그런데 한 처녀가 스스로 몽진에게 시집가겠다고 나섰다. 아버지가 지난 전쟁 때 조선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몽진과 결혼해 아버지를 찾겠다는 것이 처녀가 나선 이유였다. 조선으로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만에 하나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처녀는 말하였다. 중국처녀와 몽진은 결혼해 함께 살게 되었다.

1918년 명나라의 요청으로 조선이 강홍립을 오도도원수로 삼아 2만 명의 군사를 파병해 후금을 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때 정생이 중국 군 유정(劉艇)의 군대에 응모하여 따라갔는데 유정이 패하고 말았다. 후금군은 명나라 군대를 거의 다 전멸시켰다.

이 때 정생은 큰 소리로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입니다!”하고 외쳤다.

정생은 풀려나 조선 땅으로 도망쳐 나왔다. 남원으로 내려가다가 충청도 이산현에 이르렀을 때 다리에 종기가 나 침놓는 의사를 찾았더니 의사가 중국 사람이었다. 임진왜란 때 중국군이 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의사의 살던 곳과 이름을 물었더니 곧 아들 몽진의 장인이었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구한 운명에 통곡을 하였다. 사돈 간 입을 확인한 두 사람은 함께 남원으로 돌아가 옛날 정생이 살던 곳을 찾아보았다. 그 옛날 두고 떠났던 아들 몽석은 장가들어 손자를 낳아 옛 집에 살고 있었다.

정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아들을 만났고, 다시 중국에서 낳은 작은 아들의 장인과 더불어 나머지 삶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다시 만났다가 헤어진 아내 홍도의 일이 궁금하였다. 또 다시 아내를 만난다는 것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중국에서 남편을 군에 보낸 홍도는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으로부터는 소식도 없었다. 더욱이 명나라 군대는 전멸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명은 망하고 청이 새 나라로 등장하고 있었다. 중국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홍도는 집안 살림을 정리하였다. 아들 몽진과 며느리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며느리와 더불어 중국, 조선, 일본 세 나라 의상을 만들었다. 중국 사람을 보면 중국인 행세를 하고,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인 행세를 할 요량이었다. 조그마한 배를 세내 야간을 틈타 바다에 몸을 띄웠다.

한 달 이 십 오일쯤 지나서 제주 추자도 바깥 바다 가가도에 정박했다. 양식을 보니 단 7첩이 남아 있었다. 홍도가 아들 몽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배에서 굶어 죽으면 필경 고기밥이 될 것이니, 차라리 섬에 올라가 목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사코 말리면서 말하였다. “우리들이 한 흡의 쌀로 죽을 끓여 마시면 요기가 될 것이니, 옛새 동안은 충분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 동쪽을 보니 어렵곳이 육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면서 삶을 구함

만 같지 못합니다. 행여 지나가는 배라도 만나게 되면 육지에 올라가 심중팔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홍도가 며느리의 말을 따랐다. 마침 5-6일 만에 통제사 사수선(斜水船)을 만났다. 홍도는 남편과 남원에서 서로 헤어지게 된 것, 절강에서 서로 만나게 된 일, 남편이 북쪽으로 정벌군에 따라갔다가 소식이 없던 일 등을 낱알이 말하였다. 사수선에 탔던 사람들은 홍도의 말을 듣고는 비통해 하면서 홍도의 작은 배를 이끌어다 순천에 내려주었다.

홍도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남원의 옛 집을 찾아드니 남편은 아들 몽석과 몽진의 장인인 중국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었다. 온 집안이 모두 온전할 뿐 아니라 아울러 사돈까지도 아무 탈이 없었다.』

한편 이와는 정 반대 되는 스토리가 있다. 역시 어우야담 집 이야기다.

『한 씨는 내 조카 유광(柳光)의 아내다. 임진왜란 시 왜적을 피해 양주 흥복산으로 피난을 갔다. 피난처에서 건너다보니 왜구들이 앞산에 들어와 숲 속을 빗질하듯 뒤져 자녀를 짓밟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를 본 한씨가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하였다. 왜구가 물러가자 온 집 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씨의 시체를 숲 속 나무에서 찾았다. 한 씨의 여동생도 시가를 따라 다른 곳에 숨었다가 왜장에게 핍박을 당하자 가파른 벼랑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의 아버지 한국경도 양주로 왜구를 피해 갔는데 두 딸과 각기 다른 곳에서 왜적을 만나 죽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동시에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보존하고 잃은 것이 어찌면 이토록 다른지 놀랍다. 정생이 학문에 뜻을 두지 않은 것은 그의 호탕한 기질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자진해서 군문에 뛰

어든 것도 평소 자신의 호탕한 성질이 작용했을 것이다. 홍도가 처녀의 몸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것은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홍도가 남자 옷으로 변장하고 군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스스로 몸을 지켜낸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홍도가 전장에서 소식이 끊긴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나머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조선의 옷들을 각기 장만한 것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삶의 길을 찾겠다는 강한 의욕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몽진의 처가 중국여자로서 한국남자와 혼인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우야담 자는 말한다. “마침내 온 가족 여섯 명이 기약하지 않고서도 만난 것은 만리의 바람과 파도를 넘어 국경 바깥에서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이치에 닿지 않을 만분의 일의 행운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른바 지극한 정성이 신을 감동시킨 것이라 아니하겠는가?”

이에 비해 한씨 가문의 환난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없지 않다. 한국경의 둘째 딸은 왜적에 짓밟히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첫째 딸인 유광의 처는 왜구의 난폭한 행동만 보고서도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한국경 자신도 왜구에 죽임을 당했다.

삶과 죽음이 어찌면 이처럼 그 값어치에 차이가 나는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홍도의 의지는 참으로 굳세다.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한씨 집안의 몰락은 너무나 허무하다. 왜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한 논개는 만고의 의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어찌 그 옛날에만 있었겠는가. 삶을 길을 찾아 사지를 탈출하는 북한 동포들은 이 보다 더한 것이 없지 않은 예가 허다하다. 오늘도 고픈 배를 안고 낯선 중국 땅을 배회하고 있을 동포들이 삶에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



쌍계루 (雙溪樓)
위에서 물레방아를 굶어 본다

구암이 정 (龜巖 李楨)

비었다가 가득 채워진 후 또 기우니,
가득하면 손해 볼러울 뿐이나
검슨하면 짐시 기울어질 뿐이다.

디딜바야
낙아졌다 높아졌다
실수 없으니,
기운하게 흐르는 물은
본래부터 무정했다.

雙溪樓上俯看水碓(쌍계루상 부간수대)
虛而能受滿而傾, 허이능수만이경,
招損持謙只暫頃, 초손지겸지잠경,
碓自低昂休不得, 대자저앙휴부득,
原泉活活本無情, 원천활활본무정.

이해와 사랑



이 영 춘
우소재공파 25세

지난 여름수련회 때의 일입니다. “스님! 퀴즈 하나 낼 테니 맞춰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인 한 꼬마가 수수께끼라며 갑자기 문제를 냈습니다.

“5 빼기 3은 몇까요?”

스님은 한참을 궁리했습니다. 난센스 문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의미가 숨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한 끝에 “글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 녀석이 “스님은 바보예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맞추요”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스님이 답을 알려 달라고 하니 과자를 주면 알려 주겠다고 해 과자 한 봉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스님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꼬마는 또 물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 이진 또 뭐야?”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녀석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오(5)해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3)번만 더 생각하면 이(2)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순간 스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이후 스님은 어디에서 법문 요청이 오면 '5 빼기 3'이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오해로 인해 얼마나 가슴 아파했던가?

오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던가?

이 오해는 어디서 올까?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겠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왜일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될까?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겠지.

누가 내게 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자.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진다. 이해가 되면 내가 편해진다.

스님은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5 빼기 3은 2!
그것은 삶을 새롭게 하는 커다란 힘을 가졌습니다.

꼬마는 신이 나서 퀴즈를 하나 더 냈습니다. “2 더하기 2는요?” 스님은 “4지 뭐니” 하고 가볍게 답을 말하긴 했으나 한참을 궁리하다 모른다고 했더니, 그 꼬마는 “이(2)해하고 또 이(2)해하는 게 사(4)랑이래요.” 라고 말한 뒤 깔깔대며 어디론가 뛰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

우리 모두 5 빼기 3으로 마음을 넓히고, 2 더하기 2로 화합하고 협동하며 멋진 생활이 계속되는 사천(동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엄하게 들렸습니다.

울창한 아름다리나무를 영웅처럼 안고 있는 자기보다 덩치가 몇 십 배나 큰 장수가 있었으니 매미였습니다. 하루살이는 두려움과 존경심과 감탄으로 매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누구세요?’ ‘나 매미이다’ 매미는 심심하던 차에 하루살이와 친구가 되어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기로 하였습니다. 둘이서 마음껏 공중을 빙빙 날아다니며 한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미가 자기를 떼어 놓고 더 멀리 훨훨 날아오르자 하루살이는 한 없이 분하면서도 슬프고 또 홀로 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매미가 곁으로 짜안 다가오자 하루살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매미가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양은 중천에 떠 한 참 무성하였습니다. 매미가 자기는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자기 혼자 큰 소리로 부르자

우리 종인(宗人)이 보고 가져야 할 족보(族譜)



대종회 고문 이영규
성균진사공파 25세손

1. 족보의 개념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이 없는 물은 없다.”는 속담과 같이 족보는 종족의 계보로서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가장, 행적, 묘비명 등을 모아 체계적으로 나타낸 한 씨족의 역사책이다. 이는 한 종족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임으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게하여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바 큰 것이다.

2. 성씨의 내력과 발생사

사천(동성)이씨의 씨족의 연원과 성관과 성씨의 발생사에 대하여는 2012년 대종회 소식지 뿌리(장간호)에 기재되었기에 금회에는 생략한다.

3. 우리들의 족보 내력

우리들의 족보는 5권의 책을 1집으로 만들어져 있다.
- 제1권 : 문행록에는 우리들의 시조이신 휘(諱)“식(軾)” 할아버지를 시조로 받들고 씨족의 이러한 연원과 높은 기상은 가슴대보에 서발문을 비롯하여 상조의 행장과 사적에, 그리고 많은 행적을 비롯하여 대종회에 관한 내력도 소상히



적어서 밝히고 있다. 또한 1세부터 11세까지 선조의 내력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 제2권 : 참지공파, 진사공파, 첨정공파, 참의공파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4파조의 할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 제3권 : 우소재공파, 백인제공파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2파조의 할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 제4권 : 성균진사공파, 선무랑공파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2파조의 할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 제5권 : 생원공파만 수록되어 있으며 파조할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4. 족보의 변천

우리들의 족보가 만들어진 회수는 1777년 신묘보(辛卯譜)를 시작으로 1998년 무인보(戊寅譜)가 8번째로 만들어졌다. 년도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년도별	1777	1836	1875	1899
간지별	신묘보 辛卯譜	병신보 丙申譜	을해보 乙亥譜	기해보 己亥譜
년도별	1926	1955	1973	1998
간지별	병인보 丙寅譜	을미보 乙未譜	계축보 癸丑譜	무인보 戊寅譜

5. 족보를 보는 법

족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지공파 족보 파조할아버지 란을 “예”로 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예” 참지공파 뒷장 11세란 휘(諱)“삼산할아버지” 밑 적은 숫자 “권1” 란은 9파조 할아버지에게 부여된 숫자이며, 세로 6칸을 1칸에 “몇세”로 기록하



였고, 최하단란 좌측에 “석과(碩果)” 할아버지 밑 작을 글자로 “견하13”의 숫자를 보고 13페이지 16세 휘(諱)“석과(碩果)” 할아버지와 이어지는 자손을 볼 수 있고, 다시 16세 휘(諱)“석과(碩果)” 할아버지 밑 작은 글자로 “견상1”로 되어 있다. 그는 다시 “1” 페이지로 가면 “석과(碩果)” 할아버지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 장을 넘기면 15페이지 하단 21세란의 “대숙” 할아버지 밑에 작을 글자로 견하79라고 되어 있으므로 79페이지의 상단에 21세 휘 “대숙”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찾으면 족보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족보에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 1998년 무인족보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문 옆에 한글로 토를 붙여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었다.

6. 족보가 왜 중요한가

지난 무인족보(1998년)를 만들 당시 초단을 잡아 인쇄를 하여 교정을 여러번 마치고 완전히 족보책을 만들기 직전에 어느 한분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저희 (이만준→추진위원장, 대종회회장, 총무 겸 재무)에게 전화가 왔기에 내용을 알아본 즉

한 가정의 딸(2명)들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꼭 알아주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히 애원하고 부탁하였다 한다. 이 딸들은 왜 뿌리를 찾으려고 했는가. 앞으로 출가하여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의 뿌리가 어디인지 물으실 때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알고 보니 이분 딸들의 아버지는 부산 지하철공사 막장 공사의 인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뿌리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한 끝에 저희 임원진을 찾는데 성공하였으며 문증을 찾는 과정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 한다. 그러나 이분들의 선조에 대한 행적과 후손들은 우리들의 족보에 어느 파에 몇 “세”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을 찾기에는 쉽지는 아니하였다.

그분들은 강원도 남부 경북 북부 등지에 산재하여 살고 있었으며 그분의 윗 조상분이 족보 한 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진사공파 파조할아버지는 충남 공주에서 벼슬함에 따라 그곳에서 이거(移居)한 것이며 그 후손들은 대전, 논산, 대덕 등지와 경북 상주, 문경 등지에서 세거지(世居地)를 옮기며 살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바 진사공파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몇 세손인지 등 여러모로 검토와 검토를 거듭한 결과 확실한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이미 족보는 인쇄가 완성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족보책에 수록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를 심중히 대종회장과 추진위원장, 총무, 재무와 인쇄소 관계자와 상의한 결과 족보책 제2권 진사공파 Page506-1 ~ Page506-16 사이에 추가 삽입하기로 결정하여 인쇄함으로 족보가 완성되었다. 이 한분의 요구사항을 족보에 입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으며 그 문중에 대하여 종인을 찾는 데는 힘든 고충을 받은 것을 여기에 밝혀 보는 바이다.

7. 각 세대 당 족보 한 질 정도는 꼭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종인은 지난 1998년 무인족보가 발간되어 대종회에서 100여질을 보관하고 있다.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종인은 꼭 한 질을 구입하여 한 가정의 가보(家寶)로 보관하고 후세대에 이어지는 행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해 본다.

하루살이와 매미



행정학박사 이 준
(참의공파 25세)

어느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을 맞으며 하루살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투명하고, 땅은 참으로 싱그러웠습니다.

온갖 풀잎이 신선하였고, 황홀한 여름 꽃향기에 취한 벌나비의 무리지어 추는 춤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정경에 취하여 있는데 어디선가 우렁찬 노래 소리가

하루살이는 매미가 참으로 밍고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심을 한껏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컷 노다 보니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누엿 누엿 지고, 저녁이 되어가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이제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자 순간 하루살이는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내일이 뭐야?” 그러자 매미는 답답해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응, 지금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되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 일족은 저마다 모두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획 과거사

구암 이정 선조의 탄신500주년 행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오늘 이 글을 쓰는 사람은 1998년 11월 26일 사단법인 구계서원 이사장직을 맡아 지난 과거사를 청산한 바로, 새로이 구계서원 구산사 사당내 배양된 구암 이정선생(1512 ~ 1571), 성웅 김덕합선생을 매년 음력 2월말 (경) 자일 제향하고 사녕 최씨 부사공과 구암문중 15세손 함의재 최관(1706 ~ 1762)을 좌측에 별도로 위패를 모시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의 거국적인 행사로 매년 서원내의 제향과 학술세미나, 구암제(과거시험재현) 실시, 구암집발간과 탄신500주년 행사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구계서원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되어 오늘날 축제가 됨을 우리 종인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사천읍에서 금곡 쪽으로 지방도 1002호선 4km 쯤 가다보면 구암리 좌측에 있는 유서깊은 구계서원은 조선 중기에 보급된 사학기관으로 유현의 의대를 모시고 유학자들의 학문을 장려하던 기관으로 공공교육기관인 향교와 더불어 지방교육의 주축이 되었던 서원이다.

본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다음에 세운 서원으로 구암리 산43번지에 조선중기 4조(중종, 인종, 명종, 선조) 임금 때 요직을 두루 거친 사천인의 자긍심을 더욱 높인 분이며, 문신이요, 충신이며, 효자이고, 학자이신 구암 이정 선생의 생애 업적을 기리고, 향사(제사)를 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원(구산사)으로 우리 지역 선조들의 학문 숭상 정신을 가름할 수 있는 곳이며, 후진 양성에 힘쓰기도 한 곳이기도 하였다.



이정 선생께서 세상을 떠난지 40년만인 광해군 3년(1611년)에 제자들과 유생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사당 구산사를 창건하였다. 그 후 사천지역 사립유학자들의 소청으로 숙종2년(1675)에 구산서원 창건 65년만에 나라에서 구계의 액호가 내려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조 말엽인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져 1871년이 190여년후 전국에서 47개소를 제외한 사액서원이 모두 훼손되었다. 1898년 11월경 대원군의 세력이 약해지자 사천지역 각 문중과 향교 유립, 유생들이 중심되어 훼손 당시에 불수 안된 재산 등을 복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훼손된 후 1900년 유림에서 뜻을 모아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를 중수하여 제향을 받들었다. 그 후 서원 복원을 위하여 유림회원의 노력으로 1931년 현재 이르는 서원과 그 부대 시설이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일제 치하 경남도 평의원, 중추원, 참의를 지낸 최연국(사녕 최씨 15세손)을 구암 이정 선생과 성웅 김덕합 선생의 위패 옆에 선생의 칭호로 강제 입사하여 사원의 행사권을 강점함으로써 유립측과 최씨측과의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구산사의 함의재 최관은 구암 땅에 처음 정착한 사녕최씨 부사공과 사람으로 후세들이 일제치하에서 권력, 재력, 세력을 이용하여 구암문중에는 선생의 칭호를 받고 서원에는 봉향 입사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강압 입사된 인물이다.

1931년도 최관 위패 봉안으로 인한 분쟁은 위패 봉안유지, 철수, 재산권리 주장을 위하여 구계서원(이씨)과 대관대유계(최씨)를 분리 결성 서로의 권력, 세력, 재력 등을 이용하여 투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던 중 1964년 본 서원 재산을 대관대유계 단독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등 법정소송을 제소함으로써 토지, 건물, 임야를 1심에서 3심(지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법정투쟁함으로 1995년까지 70여년간 계속되면서 양쪽 문중의 분쟁으로 아주 깊은 골이 됨에 따라 서원의 향례가 중단되었다.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1997년도 사천향교 유림회원이 주축이 되어 양 단체를 설득시켜 합의가 되고

성균진사공파 25세 대종회 고문 이영규

록 기초를 마련하였고, 사천이 낳은 구암 이정 선생의 제향을 받들기로 결정하였다.

중재를 맡은 향교유림단체에서는 선 제향을 받들고 계속 합의의 도록 하기 위하여 사천을 배춘리 허상씨와 사단법인 구계서원이사장인 이영규가 주축이 되어 양 문중대표 사녕최씨측 최형경씨, 우리 문중 이만춘씨를 만나 제향을 지내도록 설득하였다.

그러하여 중단된 제향을 1998년 3월31일(음 3.4) 중단 이후 첫 춘향제를 올리게 되었다. 합의에 의한 노력은 1997년 11월20일부터 개인면담, 양 문중을 찾아서 방문, 전화, 서신, 회의모임 등 그의 양 단체 자체모임으로서 2002년 7월14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친 모임 후 결국 최종합의를 함으로 동년 8월25일 임원구성과 정관을 확정함으로 긴 세월 동안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단체로서 "사단법인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획"이 발족하게 되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양보 또는 양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폭언과 화해 설득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간애도 저버린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만 구암선생의 제례 향사는 양 단체에서 뜻은 같은 맥락이며, 또한 사천시민과 각계 각층의 학계, 정계, 단체, 관계다수가 합의를 원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앞으로 사천의 대표적 학자이신 구암 선생의 언덕을 기리는 향례 제향이 이 고장을 빛낼 수 있다는데 큰 뜻이 있으며 구암선생의 생애에 청렴, 충성, 효도, 예절, 스승됨을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 청렴결백과 사회의 모범이 되며 훌륭하고 검소한 생활과 "나라에는 충성과 부모에 효도를, 백성에게 믿음, 자식간에 신뢰를, 이웃간에 사랑을, 형제간에 우애를 실천하야 할 것"이며 70여년간 긴 세월이 너무나 깊은 투쟁의 골을 완전히 해소하여 불행하였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양 단체의 목은 때를 씻고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끝으로 그때 합의가 안되고 계속 법정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구암선생의 업적 등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탄신 500주년 행사가 어찌 성대하게 마쳤겠는가를 생각해 본다.



조원사(肇源祠) 괴담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고문 성균진사공파 25세 이영규

인간이 살아가면서 미신이 있다 없다 하는데 2010년도 조원사 제향을 모시는 날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리사(管理舍)에서 메를 지어 일곱 그릇을 담아 경덕문(景德門)까지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 본인(25세 손영규)이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경덕문 앞에서 본인의 부인에게 인계한 후 부인이 경덕문을 넘은 순간 메를 담은 쟁반의 메가 쏟아졌다. 이때 제물을 차리고 있던 조원사를 관리하는 이정오씨 부인에게서 그 메를 어느 밥솥에서 퍼왔느냐고 묻기에 7개의 밥솥 가운데 큰 밥솥에서 메를 담아왔다 하니까

그 밥솥의 밥은 오늘 참석하신 종인들이 먹을 것이고, 작은 밥솥에 밥이 조상님에게 대접할 메라 하여 다시 가서 작은 밥솥의 메를 담아 조상에게 대접한 일이 있었다.

조상께서는 부정함은 아니 먹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는 우리들의 조상이 그렇게 현명하고 영리한 줄 우리는 몰랐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충분한 몸가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을 숭상하고 제향을 모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다.

2013년 4월

견고 싶은 제주 올레길 - 7코스 기행

생원공파 25세 이정석



지난 가을 한동안 기획하여 가보고 싶은 11일간의 제주에서 흥도까지의 여정에 나섰다. 일 년 중 가장 여행하기 좋다는 천고마비 지절의 흠뻑 혼자 나선 여정이었다. 근래에 들어선 어디나 걷기 열풍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때인 지라 이곳 제주에서의 21구간중 6,7코스는 가장 풍광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첫날 성산일출봉을 시작으로 우도 - 쇠소깍 - 정방폭포 - 천지연폭포 - 세연교 - 유람선 - 외돌개 - 대포동 주상절리 - 송악산으로 이어지는 여정 중 오늘은 제주에 온 지도 벌써 나흘째이다.

잠자리도 먹거리도 편안한 밤을 보낸 난 서둘러 인근의 유명 관광지인 외돌개에 당도하니 08시이다. 청명한 날씨에 기분마저 상쾌하니 오늘은 쉬엄 쉬엄 요산 요수를 즐기며 가는 데까지 가 볼 참이다.

인간은 누구나 여행을 꿈꾸지만 말로 하긴 쉬워도 실제 도전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외돌개엔 주말 아침이지만 아직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외돌개의 애절한 전설도 흥미해 보면서 발아래엔 외로운 강태공 하나가 세월을 낚는 질 고기를 낚는 질 알 길은 없지만 오늘은 나도 강태공도 자연 감상에 열중인 요산 요수꾼이다.

이윽고 소란스런 분위기에 고개를 돌리니 요즘 어딜 가나 몰려다니는 중국인 관광객 무리이다. 그들이 모처럼의 외국 나들이 일 테지만 번잡한 행동은 조용히 둘러보는 나에겐 신경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다.

한참을 절벽 풍광따라 걸으니 길가의 간이매점도 두세 곳이 있어 그리 서두를 일 없는 난 쉬어도 가며, 아름다운 제주의 만추를 내 두 눈에 담고 렌즈에 주위 담았다. 그저께도 제주에서의 올레길 걷기 행사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은 모양이다.

중국의 관광객은 하루 평균 5,000여명이나 넘쳐 나고 올레 열풍 따라 너도 나도 걷기 열풍에 동참이다.

멀리 떠 있는 밥섭의 풍광이며 청정 바다의 해풍이 감귤 향기에 실려 코끝을 간지럽게 하는 천고마비의 여행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내일로 미루다 인생 저물게 보내지 말고 오늘 흠뻑 배낭을 챙겨 도전해 보시길.. 도전하는 열정이 있는 한 청춘이라는 말은 분명 맞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맞이해선 세 가지의 후회를 한다고 한다. 내가 참을 걸! 내가 베풀 걸! 그리곤 후회없이 즐기 걸! 이라 하질 않든가? 또한 걷는 것이 운동으로선 으름일 뿐 아니라 천천히 걷는 자연 감상이라야 여유와 함께 모처럼 일상 탈출의 재미를 만끽하리라.

정오가 가까워 오는 나절엔 대포동 주상절리에 당도하여 태초 제주 형성의 비밀마저 알아도 보면서 제주컨벤션센터를 경유하여 중문의 색달 해변에 당도하니 오후 2시이다. 청명한 햇살은 무덤기까지 하여 색달 해변은 뒷산에 올라 보기로 하고, 가파른 작은 언덕에서 내려다 본 색달 해변은 간간히 젊은이들만이 눈에 띈 뿐이다. 멀리의 하이얏트호텔이 한 쪽의 그림처럼 다가오고 희미하게 다가오는 산방산과 아름다운 풍광의 송악산은 널 찾아 가리라.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 주러 송악산 - 산방산 - 용두암 - 산굼부리 - 성읍마을을 거쳐 성산포에서 전라로 건너 가 백양사 - 유달산 - 흥도 -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11일간의 대장정을 이렇다 할 불편함 없이 인생 풍류와 세월의 비타민을 실컷 만끽한 행복한 여정이었으며, 또 다시 다음은 어디로 가야할 지 생각만 해도 맘이 설렌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부산화수회 회원동정

- 이용호(25대) 부산남구청 건축과장 승진
- 이창문(27대) 부산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승진
- 이영춘(25대) 부산 강서 송정초등학교장 승진 축하합니다.

소식지 3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3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지로 엮어 보고 싶습니다.
- ▶ 원고의 장르 : 구암할아버지 또는 선조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종회 운영 현황, 사천시와의 협력사업 현황 등등
- ▶ 원고의 분량 : A4용지 3~4매 이내(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3호 발행 일시 : 미정 (그러나 보내주시면 언젠가는 만듭니다.)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규 (선무랑공파 24세)

